

건강증진 II			번호: III - G - 5		
제 목	국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흡연예방교육의 효과 평가			
	영문	The Effects of A School-Based Smoking Prevention Program on Middle School Students			
저 자 및 소 속	국문	황혜숙 ¹⁾ , 전진호 ²⁾ , 손혜숙 ²⁾ , 이종태 ²⁾ 1) 부산남산중학교, 2)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문	Hye Sook Hwang ¹⁾ , Jin Ho Chun ²⁾ , Hae Sook Sohn ²⁾ , Jong Tae Lee ²⁾ 1) Busan Namsan Middle School, 2)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분 야	보건관리 보건사업	발 표 자	황혜숙	발표형식	구 연
			일반회원		
진행상황	연구중 → 완료예정시기: 2002년 12월				
<p>1. 연구목적 최근 성인의 흡연률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청소년의 흡연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연구는 중학생의 흡연 관련 특성을 파악하고 흡연예방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p> <p>2. 연구방법 부산광역시 1개 남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잘 계획된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개입연구의 형태로 시행되었다. 교육프로그램은 1999학년도부터 1학년 기간 동안 10시간의 보건수업과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제공하였으며 내용은 보건수업, 실험실습, 자율학습활동, 금연홍보물 만들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연구기간은 2000년 2월부터 2002년 2월까지였으며 조사방법은 흡연 인식, 태도, 흡연률 등에 대한 설문조사였다. 자료분석에는 SPSS(ver 10.0)를 이용하였으며 교육여부별 상습흡연의 위험 등을 odds ratio(95% 신뢰구간)으로 평가하였다.</p> <p>3. 연구 결과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최근 1년 간 일주일에 1회 이상 흡연하는 상습흡연률은 2.5%였으며, 상습흡연률은 1학년 0%, 2학년 2.7%, 3학년 5.0%로 증가하였다. 대다수(95.4%)가 '흡연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반응이었으며, 받은 교육프로그램의 선호도는 비디오 시청(40.4%)과 실험실습(32.7%)이 높았다. 담배는 직접 구입(36.6%)이 가장 많았고, 흡연욕구가 강할 때는 집에 혼자 있을 때(28.9%)와 흡연하는 친구를 만날 때(27.9%)가 많았다. 흡연 경험 후 좋았던 점과 나빴던 점은 모두 고학년일수록 많아졌다. 교육 후 전체의 64.2%가 금연하게 되었으나, 3학년이 될수록 재흡연하는 율이 높아졌다. 1999학년도 신입생에 대한 3년 간의 추적 관찰에서 상습흡연률은 1학년 0.2%, 2학년 1.7%, 3학년 5.0%로 유의하게 늘어났으나(P<0.001), 전국의 1999학년도 신입생의 상습흡연률 통계인 1학년 1.1%, 2학년 6.3%, 3학년 8.5%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미래에 절대 흡연 않겠다'와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로 판단한 미래에 흡연할 가능성은 고학년이 될수록 증가하였다. 1998학년도 입학생(비교육군)과 1999학년도 입학생(교육군)을 비교한 결과에서 상습흡연률은 교육군(5.0%)에서</p>					

비교육군(13.5%)보다 유의하게 적었으며($P < 0.001$), 교육군의 비교육군에 대한 호기심흡연의 OR은 0.87(0.52~ 1.45), 상습흡연의 OR은 0.33(0.20~0.57) 이었다. 교육군의 비교육군에 대한 '미래 흡연 가능성'의 OR은 0.43(0.31~0.59), '흡연은 해롭다는 생각'의 OR은 4.42(2.52~7.77) 이었다.

4. 고찰

흡연예방교육의 효과는 분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상습흡연률과 흡연 가능성이 고학년일수록 증가하고 있으므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강화 교육이 요구된다. 성공적인 조기흡연 예방을 위해서는 관심을 끌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과,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의 환경조성과 공동노력이 필요하다.